

청소년

독서 수업 지도안(학생용)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클라라의 전쟁

캐시 케이서 글 | 황인호 그림 | 김시경 옮김

스폰북

교안 개발: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 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 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니에듀 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 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클라라의 전쟁

- ★ 글: 캐시 케이서
- ★ 옮김: 김시경
- ★ 출판사: 스폰북
- ★ 정가: 12,000원
- ★ 분량: 208쪽
- ★ 대상: 중학생
- ★ 주제어: 역사, 제2차 세계대전, 전쟁, 희망
- ★ 교과 연계: 중학교 역사2 6. 현대 세계의 전개
국어4 3. 경험의 재구성

★ 책소개

클라라의 가족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의 지시에 따라 '게토'라는 수용 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클라라와 다른 유대인들은 굶주림과 질병, 공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용 인원, 깨끗하지 않은 환경, 언젠가는 동쪽으로 이송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감시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과연 클라라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요?

주요 독후 활동

클라라의
전쟁

책 속으로_ 게토에서의 생활

책 속으로_ 희망의 노래

토론&논술_ 클라라 인터뷰하기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표지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클라라의 전쟁》의 제목과 앞표지를 보고 이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하여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인물	
사건	
배경	

2 《클라라의 전쟁》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행위,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부모를 둔 작가 캐시 케이서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힘 있는 이야기 《클라라의 전쟁》

하루아침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나 테레진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클라라네 가족. 비위생적인 환경과 굶주림, 질병,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하지만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꾸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1) 홀로코스트란 무엇인가요?

.....

2) 이 책의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

3) 뒷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라가 겪게 될 이야기를 예상해서 써 보세요.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지식 떠올리며 읽기

※ 《클라라의 전쟁》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지식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나의 지식	



독서 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1쪽] 한때는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던 상점들도 이제는 클라라의 마음을 우울하게만 할 뿐이었다. 유대인은 어떤 사업체든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나치의 규칙 탓에 상점 주인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이 아닌 주인의 상점은 열려 있었지만, 문에 내건 안내문에는 여지없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대인 사절!’

(나) [13~14쪽] 히틀러는 유대인을 증오하고 독일인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며 벌주고 싶어하는 냉혹하고 잔인한 지도자였다. 사업이 안되고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이 유대인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 폴란드를 침공한 뒤, 나치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이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규칙과 금지 사항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클라라가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평판이 좋은 의사였던 클라라의 아빠도 근무하던 인근 병원에서 해고되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아빠는 여전히 유대인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클라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다윗의 별’ 모양으로 생긴 노란색 배지를 달았다. 일단 그 별을 달고 있으면 노바크 아주머니 같은 기독교인 이웃은 절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했다. 어느 순간부터 영향력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잡혀가는 일도 잦아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지 못했다.

1 (나)에 나타난 히틀러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각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에 사업이 안 되고 () 사람이 늘어나고, ()가 부족해진 것은 모두 유대인 때문이다.	→	유대인을 () 한다.
---	---	------------------------

2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규칙을 찾아서 써 보세요.

- 유대인들은
- 유대인들은

3 노바크 아주머니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추론하여 써 보세요.

.....



독서 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5~16쪽] “프라하의 북서쪽에 나치가 프라하와 다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두었다는구나.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될 거야. 그들은 그런 곳을 ‘게토’라고 부르지. 통지서에 따르면 우린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거래. 마을 이름이 테레진이라는구나.”

(나) [31쪽] 어디에나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서 지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 이동하는 내내 질서를 유지했다. 마침내 자신들이 살아갈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될 순간이 왔다. 그런데 마지막 명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온갖 명령들 중에서도 가장 놀랄 만한 것이었다.

“남자들은 왼쪽 막사로, 여자들은 오른쪽 막사로 가라. 아이들은 곧장 앞으로 가라.”

클라라는 재빨리 부모님을 쳐다보았다. 부모님도 클라라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엄마, 우린 함께 지내지 못할 거래요.”

사람들이 앞으로 우르르 밀려들자 클라라는 겁이 나서 엄마의 팔을 꼭 붙잡으며 숨을 헐떡였다.

지정된 세 집단으로 바로 줄이 나뉘는 바람에 미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클라라는 두려움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베드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떻게든 엄마와 아빠를 찾아보려 했다. 베드로는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다.

‘도와줘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 부모를 찾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동안, 클라라는 우르르 떠밀려 가는 사람들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다.

“클라라! 엄마 아빠가 최대한 빨리 너희를 찾을 거야. 그러니 꼭 베드로와 함께 있어야 해.”

1 위의 (가)를 보고 클라라네 가족이 가게 된 ‘게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이름	
위치	
특징	

2 클라라네 가족이 생각했던 게토의 모습과 실제 게토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는지 각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게 될 마을에서 우리는 ()



② 사실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



독서 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57~58쪽] 클라라는 되도록 빨리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줄을 섰다. 게토에서 첫 번째로 마주한 현실이 클라라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35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에 화장실은 겨우 두 개밖에 없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줄은 길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화장실 양옆에는 나이가 더 많은 소녀들이 당번을 맡아 변기가 막히거나 넘칠 경우에 대비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서 있었다. 클라라는 차례가 되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코를 틀어막았다. 재빨리 볼일을 마치고 난 뒤, 깨끗이 씻고 싶은 마음에 녹슨 수도꼭지가 있는 세면대로 달려갔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배수관에서 줄줄 흘러나와 때가 타서 거무스름해진 세면대 속으로 떨어졌다. 클라라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더러워진 얼굴과 손을 문질러 씻으면서 몸을 덜덜 떨었다. 비누도 없고 세수수건도 없어서 전날 흘린 땀과 몸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씻어 낼 수가 없었다.

(나) [80~81쪽]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네가 아까 왜 여기에 온 게 행운이냐고 물었지? 왜냐면 동쪽으로 가는 기차는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말이 있거든. 그곳엔 우리를 죽이려고 지어진 죽음의 수용소들이 있대.”

클라라도 동쪽에 있는 수용소들에 관한 무서운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래서인지 들을 때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들었다. 이때만큼은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보니 모니카는 클라라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테레진을 떠나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듯했다.

1 (가)에서 클라라가 게토에서 첫 번째로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여 써 보세요.

.....

2 (나)에서 밑줄 친 ㉠의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아래 <조건>에 맞게 30자 내외로 써 보세요.

조건 게토에서의 상황과 동쪽 수용소의 상황을 비교할 것

.....

.....

.....



독서 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60쪽] “새롭고 낯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든 익숙한 일을 빨리 찾는 거야. 여기 테레진에는 정말 훌륭한 화가와 음악가, 학자들이 계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행운이야. 그 분들은 계토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재능을 발휘하고 계셔.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숙소에 와서 수업을 해 주셔. 고향에서 하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특별한 수업이란단. 누구 클라라와 한나에게 우리 학교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줄 사람?”

에바라는 이름의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린 여기서 시를 쓰는 건 물론이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것도 배워. 너희도 수업이 얼마나 멋진지 알면 깜짝 놀랄걸. 선생님들은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정말로 현명하셔.”

“우린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 교과서에서 읽었던 따분한 역사와는 달라.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걸 알고 있고 우리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 우린 함께 여러 생각들에 대해 토론하기도 해.”

(나) [143~144쪽] 결국 브룬디바르가 붙잡혀서 끌려가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 곱은 경찰관으로서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 주었다. 합창단이 부른 자장가에는 많은 관객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한나는 공연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발을 헛디디지도 가사를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다음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 서둘러 몰려가면서 클라라는 무대 뒤에서 한나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한나는 꽤나 즐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공연이 끝날 무렵, 모든 관객들이 일어서서 발을 구르며 “브라보!”라고 소리쳤다.

1 (가)와 (나)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했던 것들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가)

(나)

2 (가)와 (나)를 통해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래 <보기>의 단어들을 넣어 설명해 보세요.

보기 배움, 예술, 고통, 즐거움, 함께



독서 후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92쪽] “내가 고칠 수 없는 병도 있단다, 클라라.”

아빠는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격리실 안에서 베드로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숨 쉬는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클라라는 엄마가 연약한 베드로의 몸을 들어 올려 품에 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클라라는 베드로가 영영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클라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몸속에서 눈물이 다 말라 버린 것 같았다. 그저 엄마가 베드로를 품에 안고 계속 흔들면서 베드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마침내 간호사들이 진료소에서 시체 옮기는 일을 하는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는 품에서 자신의 아들을 놓아주었다.

다음 날 클라라는 엄마, 아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테레진의 거리를 지나는 수레 뒤를 따라갔다. 수레에는 시신이 실려 있었다. 베드로는 그날 죽은 수십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나) [199쪽] 경비병들이 문이 열린 화물차 쪽으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는 동안, 클라라는 한나와 가족들 옆에 서서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이 왔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꼭 끌어안았다. 한나는 클라라의 자매이자 마음이 통하는, 믿고 의지할 수 있던 친구였다. 두 사람은 테레진에서 수많은 힘든 순간들뿐만 아니라 멋진 순간들도 함께 나누었다. 함께 울고 웃었다. 클라라는 한나에게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간절히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다) [200~201쪽] “오늘 여기 처음 왔어. 기차가 막 도착했거든. 난 6번 방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

소녀는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바들바들 떨리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클라라는 그 소녀의 표정이 낯설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부모님은 괜찮으실 거야. 어딘가 다른 막사에 가시겠지만 아마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넌 제대로 찾아왔어. 내 이름은 클라라야.”

1 윗글에서 밑줄 친 ㉠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2 (가), (나)에서 클라라를 힘들게 한 공통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요?

3 (다)를 바탕으로 클라라가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 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_① 클라라의 선택은 옳았을까?

※ 나치는 국제 적십자 시찰단을 속이기 위해 마을을 꾸미고 오페라 공연까지 하도록 합니다. 클라라와 사람들이 이 공연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토론해 봅시다.

[164쪽] 클라라는 오늘 공연이 형편없으면 출연진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공연을 잘한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오케스트라가 서곡의 첫 음을 연주하면서 〈브룬디바르〉 공연이 시작되었다. 클라라는 울타리 뒤에서 객석을 몰래 엿보며 방문객들을 살피려고 애썼다. 나치 장교들은 이번 방문에 맞춰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제복을 입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국제 적십자에서 온 세 사람이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포개고 오페라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세 사람은 이날 자신들이 직접 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밖의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공연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옳다

vs

공연을 하지 않거나 망치는 것이 옳다.

근거

근거



독서 후

※ 나치가 패배하고 게토에서 지내던 수용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살아남은 클라라가 되어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질문자



: 클라라



안녕하세요? <스폰뉴스>의 김에듀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치 수용소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클라라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네, 클라라님. 처음에 나치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

.....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나요?



.....

.....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

.....



독서 후



: 질문자



: 클라라



또래의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
.....



네, 오늘은 계토의 생존자 클라라 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클라라 님은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셨는데요, 앞으로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폰뉴스>의 김에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한 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즉 독서력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어사모)회원사와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들이 모여 1년에 2회, 대략 60종의 독서 지도안을 만듭니다. 독서 지도안은 아이들 책을 가장 잘 아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추천한 도서를 토대로 장르별로 선별해 만든 것입니다. 독서토론논술 지도안으로 독서 활동을 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간추리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 명의 독서 교육 전문가가 독후 활동 주제망으로 핵심 단어를 뽑은 뒤, ‘독후 활동 시작하기 → 독후 활동 주제 1 → 독후 활동 주제 2 → 독후 활동 주제 3’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제시합니다. 이 독후 활동 단계를 경험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작품에는 없는 새로운 독후 활동을 스스로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의 독서 지도안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독서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00편의 독서 지도안 중에 좋은 책을 골라 2018년 국어 교과서에 새롭게 신설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학생용)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 &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

청소년을 위한 풍부한 어휘력, 생각하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다양한 책

no	대상	출판사	제목	글	그림	번역
1	청소년	블랙홀	골드피쉬 보이	리사 톰슨		양윤선
2	청소년	초록서재	독립운동가가 된 고딩	이진미		
3	청소년	마음이음	드림 셰프	이송현		
4	청소년	중앙출판사	모해를 찾아라	안수자	이명애	
5	청소년	서해문집	미스 손탁	정명섭		
6	청소년	미래인	비이로그 조작사건 (청소년결작선52)	팀콜린스		김영아
7	청소년	크레용하우스	서 쌤이 알려주는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직업 이야기	서지원	홍자혜	
8	청소년	도서출판 다림	시간을 걷는 소년	이순원		
9	청소년	도서출판 봄별	아름다운 번역자들	조이 크리스데일		손성화
10	청소년	뜨인돌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장은선
11	청소년	마음이음	오늘은 무슨 맛	정은숙 외 5인		
12	청소년	단비청소년	우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창신강		주수련
13	청소년	천개의바람	울프 와일더 : 늑대와 달리는 소녀	캐서린 런델		백현주
14	청소년	뜨인돌	처음엔 사소했던 일	왕수편		조윤진
15	청소년	스픈북	클라라의 전쟁	캐시 케이서	황인호	김시경
16	청소년	이마주	푸른개 장발	황선미		

